



2016학년도 해외인턴십

I. 해외인턴십의 의의와 목적

2012년 2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MOU체결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현지 외교관들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국제 법률적 문제의 처리를 보조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법학 전공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배양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경력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II.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소개

1. 주요 활동 및 목표

오스트리아는 1955년 국가조약 및 헌법을 통해 중립정책을 외교정책의 기초로 택하였고,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수도 비엔나는 뉴욕, 제네바와 함께 세계 3대 국제기구 소재 도시가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하여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엔외기권사무소(UNOOSA)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비엔나사무소(UNOV),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한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비엔나는 연간 국제회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은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과 함께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 개요

오스트리아는 수려한 알프스의 경관, 합스부르크 왕조의 찬란한 유적,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요소 이외에

도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강국, 수출 강국, 창조와 혁신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럽전체가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오스트리아는 EU 국가중 가장 낮은 실업율을 기록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다. 철강, 자동차부품, 제약, IT 장비 등 제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위주로 발전해왔으며, 총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창조경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경영학에 도입한 혁신의 아버지인 쉘페터(Schumpeter)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조산업은 전체 경제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8,400개의 기업에 130,5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1892년 '조·오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63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수교 120주년, 2013년에는 양국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경제관계도 긴밀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정부는 상대국가의 청년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Ⅲ. 활동계획

1. 방문 기간 : 2016년 3월 01일 - 8월 31일 (약 180일)

2. 일정

날 짜	일 정
3/1(화) (한국시간)	인천공항 출발 -> 빈 공항
3/1(화) (오스트리아시간)	빈 공항 도착
3/3(목) (오스트리아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한국 대사관 방문
3/3(목) ~ 8/2(화) (오스트리아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한국 대사관 인턴십
8/2(화) ~ 8/30(화) (오스트리아시간)	오스트리아 주변 동유럽 국가 방문
8/31(수) (오스트리아시간)	빈 공항 -> 인천 공항 출발
9/1(목) (한국시간)	한국 도착